

## 코비트 19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부디 라하유 병원의 연대



코비트 19는 인도네시아에서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틀담 수녀들이 생활하는 페칼롱간 정부는 공공, 사립 병원에서 모든 보건 서비스를 설립하고 실행하는 중입니다. 지역 정부는 우리 부디 라하유 종합 병원에서도 코비트 환자들을 받도록 인가해 주었습니다. 2021년 6월 23일, 부디 라하유 병원은 여덟 개의 침상을 갖춘 격리실인 성 카밀루스 병실을 세울 수 있는 허가를 얻었습니다.

며칠 내로 코비트 환자들은 수용 인원을 넘어갈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2021년 7월 11일, 병원 재단과 원장들은 부족한 산호 호흡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추가적 코비트 환자들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수녀들이 스스로를, 그리고 나머지 노틀담 공동체를 바이러스에서 보호하기 위해 방역책을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 수녀 중 한 명이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약 14일간 격리되었습니다. 격리실에 있는 환자 전원은 CCTV를 통해 직접 관찰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늘어나는 확진 사례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코비트 상황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대적인 봉쇄와 무료 예방접종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방 접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효과를 믿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백신이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짜 뉴스때문에 접종을 기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유행병이 빨리 지나가리라는 것과, 코비트에 감염된 이들이 빨리 회복하여 힘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희망합니다.

좋은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기를. 솔리 데오, 오직 하느님 만을!